

미국의 지지와 유대강화

미국의 지원없이 존속 불가능한 나라의 현실적 상황과 과도기적 혁명 정부에게 있어 가장 시급한 과제는 국내에서 정통성 확립과 미국으로부터의 승인을 받는 문제였다. 미국은 당시 한국 국가예산의 50% 이상과 국방예산의 70% 이상을 제공하는 실정이었다. 미국의 외교적 승인과 정통성을 인정받아야 대공상호방위 체제는 물론 경제 및 군사 원조를 통해 산업화를 추진할 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에 대미 외교는 정상에서부터 미국 각계의 지도자들에게 까지 폭넓은 지지와 우호세력을 구축하는 것이 국가적 과제였다.

이를 위해 JP는 혁명정부의 기반이 안정을 이루자 1962년 10월 미 국무부와 중앙정보국(CIA)의 공식 초청으로 미국을 방문하여 혁명정부의 당위성과 정통성을 설파하고, 극동지역에서 미국의 우방임을 확신시키며, 경제원조와 각종 지원을 받아내는 성과를 거두기 시작한다.

1973년 1월 백악관에서 닉슨대통령을 만났다.

김종필 총리는 미국 워싱턴 캐시드럴사원에서 거행된 고 트루만 전 미국대통령의 추도식에 참석한 후 닉슨 대통령을 예방했다. 김종필은 이 자리에서 10월 유신의 배경과 남북대화의 진전 상황 등을 설명했다. 김종필 왼쪽은 김용식 외무장관, 닉슨대통령 오른쪽은 김동조 주미대사.